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부모의 의무가 있고, 우리들에게는 자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자녀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십계명의 제4계명을 다 같이 외워 봅시다. 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출애 20, 12; 신명 5, 16).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두 번이나 인용하고 확인하셨습니다(마태 15, 14; 19, 19).

성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 죄를 벗는 것이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며(집회 3, 3-4)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오래 살 것(집회 3, 5-6)을 축복하십니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고(집회 3, 16) 부모를 비웃고 깔보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되리라고(잠언 30, 17)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보잘것없고 가난하다고 하여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부모는 하느님의 협력자입니다(가정 공동체, 14).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부성의 근원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므로(가톨릭교회 교리서 2214)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향한 부모님의 수고와 배려에 감사하며 자녀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 가정은 화목해지며 형제자매와 조부모, 친척들에 대한 사랑도 더해질 것입니다.

## 작업 그림 맞추기

준비물 : 그림 맞추기, 성가정 성화

성가정 성화를 확대 출력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그림을 조각내어 조각 맞추기를 합니다. (바오로딸에서 출간한 성가정 퍼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성가정』, 한정옥, 오기철, 바오로딸, 2003)

조각난 그림을 맞추니 성가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조각을 여러 사람이 맞추려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 작업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림 조각 하나를 두고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을 직접 겪어 보니 어떤가요?

우리 가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흩어진 그림 조각을 언뜻 보면 비슷한 모양, 비슷한 색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른 그림과 다른 모양입니다. 가족 구성원도 가족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모두 다른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세대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 정리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진첩을 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지도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가정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서 부모님, 형제자매와 오붓한 시간 많이 보내길 바랍니다.

### 마침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 ※ 참고한 책

예수는 어떤 가정을 바라는가?(1-2 교회에서 보는 가정, 6-1 부모와 자녀간의 윤리와 의무, 이창영, 가톨릭출판사, 2003) / 가톨릭교회 교리서(531-533, 2214-2220항)